

<2028년 11월 2일, 맑음>

제목: 꺼진 초, 꺼지지 않은 질문

생일이라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알람은 평소처럼 울렸고, 밀린 과제는 여전히 책상 위에 쌓여 있었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도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세상의 스트레스를 모두 떠안은 것 같은 시기, 고3에 맞이한 생일. 그래서인지 오늘 저녁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었다. 오랜만에 가족과 외식을 하기로 했고, 평소보다 조금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생일이니까, 오늘만큼은 좋은 기억만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은 생일 케이크도, 선물도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집 근처에서 유명한 ○○고깃집을 가기로 했다. 고깃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대기표를 작성하고 대기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 역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 바로 옆에서 들려온 한마디에 시선이 멈췄다. “딸은 얌전히 앉아 있어. 이런 건 오빠가 해야지.”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어린 남자아이에게 직원을 부르라고 했다. 여자아이가 “나도 할 수 있는데.”라고 작게 말했지만, 엄마는 웃으며 “남자애가 더 씩씩하잖아.”라고 답했다. 잠깐의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대기 시간이 길다며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 머릿속에는 조금 전 들었던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그 말에는 악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악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남자니까’, ‘여자니까’를 말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나 역시 살아오면서 무심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며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26번 고객님, 들어오세요.”

직원의 안내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식사를 하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가족의 대화가 들려왔다. “아들, 고기 좀 뒤집어 봐. 남자면 이런 건 잘해야 해.” 잠시 뒤 딸이 집게를 집어 들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뜨거우니까 너 가만히 있어.” 딸은 말없이 집게를 내려놓았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아들은 ‘해야 하는 역할’을, 딸은 ‘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을 배워 가는 순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문득 내가 저 아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할 수 있는데.’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삼켜야 했다. 믿고 의지하는 가족에게서조차 ‘너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어쩌면 저 아이는 오늘 일을 금방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자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언젠가는 스스로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정관념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라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오늘 생일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맛있는 음식도, 케이크도 아니었다. 몇 마디 스쳐 지나간 대화였다. 생일은 한 살 더 먹는 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올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자라야 한다는 것을 배운 날이 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초를 붙였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었고, 나는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적지 않으려고 한다. 언젠가는 ‘남자니까’, ‘여자니까’라는 말이 더 이상 특별한 문제로 이야기되지 않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내 소원의 답이었음을 알게 될 테니까